

VanderWalt, B. J., *The Liberating Message: a Christian Worldview for Africa*, Potchefstroom: IRS, 1994.

Walsh, B. J. & J. R. Middleton,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Downers Grove, Ill.: IVP, 1984.

Wolterstorff, N., *Educating for Shalom: Essays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4.

선교 공동체로서의 기독교대학 :

선교인력의 양성 방안에 관한 일 고찰

Christian University as a Mission Community :
A Study of Missionary Mobilizing Method

신경규 / 선교학박사,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Prof. Kyung Kyu Shin

서론	140
I. 기독교대학의 개념	140
II. 기독교대학과 교회, 예배, 그리고 선교	143
III. 기독교대학과 단기선교, 전문인 선교	146
1. 대학생 단기선교사역	146
2. 전문인선교	149
3. 기독교대학과 전문인선교	153
IV. 기독교대학의 타 문화권 선교사 양성방안	157
1. 기존의 연구	157
2. 기독교대학의 타 문화권 선교사 양성방안	161
A. 선교에 있어서 두 가지 힘: 흡인력과 팽창력	161
B. '기능 구조'를 통한 선교인력 양성방안	163
C. '오른 구조'를 통한 선교인력 양성방안	171
결론	177

주요어 | 기독교공동체, 선교공동체, 해외선교, 오는 구조, 가는 구조, 유인

요약문 |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의 기독교대학은 본질적으로 학문공동체로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예배공동체이다. 예배공동체로서의 기독교대학은 자연스럽게 선교공동체의 본질을 가지게 된다.

기독교대학에 소속된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회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해외선교의 측면에서는 복음에 소외된 지역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적 전문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매우 탁월한 인재들의 모임(pool)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대학생들은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이거나를 막론하고 전문인선교를 위한 귀중한 인적 자원이 된다. 기독교대학의 본질이 광의적인 선교에 귀착된다면 학생들을 이러한 선교 인적자원으로 양성하고 독려하며 학교의 체제를 그러한 방향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적 자원은 재학 중 방학기간이나 휴학을 하고 해외선교사를 돕거나 직접 단기선교를 체험하기도 하고, 선교사의 자녀(MK)를 지도하는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신경규

서울대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 장신대와 고신대 신대원에서 수학하였다. 미국 Columbia Graduate School of Mission에서 선교학석사(M. A.),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학박사(D. Miss.) 학위를 받았고 현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선교문화인류학」(공저), 「열린예배: 무엇이 문제인가?」(공저), 「선교학대전」(공역) 등의 저서, 역서와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동기부여(유인, incentive)가 필요하다. 적절한 유인에는 학점의 유인과 재정적 유인이 있을 수 있다. 학점의 유인으로는 단기선교, MK지원사역, 선교실습 등의 과목을 통해 방학 중이나 휴학기간 중에 해외선교사역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 유인으로는 지역교회와 연계하여 여비와 사역비의 일부분을 제공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해외선교는 가는 방법뿐만 아니라 오는 외국유학생에게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대학의 신입생이 줄어드는 한국의 현실 가운데 중국 등 외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에게 멘토제도 등을 통해 적절히 케어하면 기독교대학 내부에서도 선교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숙사, 한글학당, 한국어교육중심의 교양과정개설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당국이 선교하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하고 이것이 전제된다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적 조직구조 또한 필요하다. 학교에 세계 선교센터를 설립하여 선교지망 학생들을 보살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돕고, 교회와 연계하여 선교동원과 훈련 등 선교지원사역을 통해 대교회관계도 원활해 질 수 있다.

Abstract

Christian University as a Mission Community : A Study of Missionary Mobilizing Method

The ultimate purpose of a Christian university as a Christian community is to pursue the glory of God. A Christian university is a community of worship, mission, and scholarship.

A Christian university is not a local church, however, it is like a church, since it is a community of saints in its nature. If it has similar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the purpose of the church can be the same as a Christian university.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hurch is 'worship to God,' and it leads to its other purpose, which is 'mission.' This can be applied to Christian universities as well.

A Christian university is an excellent environment for training students as present and future missionaries; short-term missionaries and tentmakers. Students of Christian universities can use their time to be short-term missionaries and to help missionary kids during their vacations and semesters of temporary absence from school. A Christian university also has very good conditions to rear and send tentmakers, because it usually has various majors which are urgently needed in the mission fields, in developing non-Christian countries

and those which prohibit traditional missionaries. Furthermore, a Christian university has excellent settings for training missionaries, which include training and education in the Bible, Christian doctrines, theology as well as offer activities in mission circles, and spiritual exercises in chapel.

Christian university has to have incentives for training and sending students as foreign missionaries or helpers, which include financial support and credit incentives. The opportunities of serving as a short-term missionary and of helping to educate missionary kids during vacations and semesters of temporary absence from school need to be granted as regular school credits.

A Christian university can be a mission-oriented organization by performing this kind of supports for students. If it has such a spirit as to be a mission-oriented community, it has to have a support system in a whole organizational dimension.

Key word : Christian university, Christian community, mission, short-term mission, tentmaker, incentive

서론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 존재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전체 삶과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서 기독교대학의 궁극적 존재목적은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방향성 아래 본 논문은 기독교대학의 기본개념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기존에 제시된 여러 가지 기독교대학의 역할과 방향성에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기독교대학' 이 구체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해외선교를 위한 기독교대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학생 인력동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I. 기독교대학의 개념

기독교대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대학을 규정짓기 위해 김성수 교수는 우선 기독교대학이 아닌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은 (1) 제도교회가 아니고, (2) 성경학교(Bible college)나 신학교(Seminary)도 아니며, (3) 일반대학에 기독교적 요소를 단순

히 추가시키는 대학이 아니다.¹⁾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탁월성(academic excellence)을 지닌 학문의 공동체, 교육의 공동체라는 것이다.²⁾

나아가서 그는 기독교대학을 긍정적인 용어로 정의하기를, 기독교대학은 (1) 기독교적 교육신조(educational confession)와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창조된 실재에 대한 관점과 그 속에 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독특하게 성경적이어야 한다. (3)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한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4)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한 후원집단(이사회, 교회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5)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세상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부정적(negative)이 아니라 적극적, 긍정적(positive)이어야 한다. (7) 반드시 기독교적 기르침, 연구, 봉사가 있어야 한다. (8) 삶의 여타영역, 예컨대 농업, 기업, 예술, 초·중등학교, 노동, 정치, 매스 미디어, 교회생활 등에서의 기독교적 개혁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³⁾ 고 그 성격적인 의미를 내포한 기독교대학을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한다면, "기독교 대학은 구성원이 모두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기관의 구조가 기독교적이어야 하며,

1) 김성수, <기독교대학기독교대학이란 무엇인가?> 오병세박사 은퇴기념 논문집편찬 위원회, 「기독교대학과 학문에 대한 성경적 조망」(부산, 고신대학교, 1996), 24-31.

2) *Ibid.* 27.

3) *Ibid.* 31-42.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제 학문을 탐구하고, 교육이 시행되는 교육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은 단순히 세상의 교육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시행하는 곳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서 '학문적 공동체' 임과 아울러 그 학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기독교 '봉사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은 교육적 사명과 함께 선교적 사명을 가진다.⁴⁾

무어(M. A Moore)는 기독교 공동체는 약속의 공동체로서 그것은 또한 선교적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⁵⁾ 그는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신앙의 실천을 통해 그것을 구체화하도록 부름 받은 공동체이며, 그리하여 그 약속을 실체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부름 받은 선교적 공동체임을 강조한다.⁶⁾

그는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며 그 역사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무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선교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을

4) 기독교대학의 선교적 사명에 관해서는 이복수, <기독교대학의 선교적 과제> 오병세박사 은퇴기념 논문집편찬 위원회, 「기독교대학과 학문에 대한 성경적 조망」(부산: 고신대학교, 1996), 67-78을 참조하라.

5) Mary Elizabeth Moore, *Education for continuity & change*. 이정근, 박혜성 역,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모형」(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1), 57.

6) *Ibid.*

강조하면서 기독교선교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적극적으로 나누고(koinonia), 봉사하고(diakonia), 선포하고(kerygma), 그리고 예배(liturgia)하는 것과 관련 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⁷⁾ 따라서 기독교공동체는 하나님나라를 현재적으로 이루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선교적 공동체이다.

II. 기독교대학과 교회, 예배, 그리고 선교

기독교대학이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면 기독교대학이 교회에 포함될 수 있는가? 만일 기독교대학이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 교회적 속성을 지닌다면 기독교대학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과 일치할 것이다.

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대학 = 교회' 라는 등식을 사용할 수는 없다. 즉 기독교대학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적 속성이 매우 강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기독교대학을 교회론적 범주 밖에서 이해한다면 더 이상 기독교대학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복수 교수는 이와 같은 기독교대학의 속성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은 지역교회(local church)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만 교회에 대한 본질적 개념 안에서 교회로 이해될

7) *Ibid.*, 71.

수 있다. 그것은 기독교대학의 구조(structure)가 말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구조는 그리스도를 위한 책임 있는 직분자들의 공동체적 연합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대학은 교회의 본질적 개념으로서 기독교공동체의 특성을 지닌다.⁸⁾

기독교대학을 구성하는 이사, 교수, 학생, 행정직원, 학장이라는 다섯 직분(office)의 구성원들이 각자 그들의 소명(calling)과 사명(task)을 가지고 일하는 공동체로서 이사는 대학의 종교적 방향을 지도하고, 교수는 교육적 사명의 수행을, 학생은 기독교적 통찰력을 획득, 발전시키고, 행정직원은 학습환경의 창출을 도모하며, 학장은 대학의 학문적, 행정적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도, 감독한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이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인 개념은 지역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다.⁹⁾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은 지역교회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지만 성도의 연합체로서 교회의 본질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대학이 교회의 본질적 개념으로서 기독교공동체의 특성을 지닌다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곧 기독교대학의 사명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존 파이프(John Piper)는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을 ‘예배’라고 규

8) 이복수, (1996), 68.

9) *Ibid.*, 69.

정한다. 그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예배가 선교의 목표”라고 선포한다. 그것은 선교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직 열방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⁰⁾ 따라서 예배는 선교의 원동력이 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선교의 열정으로 흘러 나가기 때문이다.¹¹⁾ 이것은 선교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존재(sein; being), 즉 성품과 생각으로부터 행위(werden; acting)가 흘러나오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규정하는 예배(sein)로부터 선교(werden)라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점,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예배’ 이듯이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기독교 공동체의 지향점도 예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는 자연스럽게, 또는 강권적으로 ‘선교’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공동체로서의 기독교대학은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선교공동체이다. 즉, 기독교공동체의 궁극적 지향점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예배’이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증인공동체’로 이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10) John Piper. *Let the nations be glad!* (Grand Rapids, MI: Baker, 1993), 11.

11) *Ibid.*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복음을 위한 공동체' 인 것이다.

가정이나 학교, 교회 등 모든 기독교공동체는 표면적 목표와 내면적 목표가 있다.¹²⁾ 그런데 기독교공동체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내면적 목표로서 그것은 곧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며,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증인' 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대학의 표면적 목표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행위에 있으나 내면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기독교대학의 본질은 학문활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공동체,' 곧 '선교공동체' 이다.

III. 기독교대학과 단기선교, 전문인 선교

1. 대학생 단기선교사역

대학생들은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을 통해 단기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기독교대학에 소속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기독교와 기독교교리, 경건훈련 등의 교육과 훈련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공을 살려 선교현장에서 단기간 다양한 사역이나 사역보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단기선교의 정의는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지만 통상 사역기간의 길이로 구분한다. 직업적인 선교로서 '장기' 사역 기간은 일반적으로 4년을 잡는다.¹³⁾ 그러므로 단기선교 기간은 다양한데, 4년보다 짧은 것을 말하며, 짧게는 한 두 주에서 길게는 3년까지를 단기선교 기간으로 잡는다. 흔히들 단기선교라고 말할 때 2년이나 그 이하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단기선교여행은 "단체나 개인이 분명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10일부터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짧게 외국을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¹⁴⁾

현대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많은 제삼세계의 피선교국들이 선교사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많은 나라들까지도 근래에 들어 외국 선교사들에게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고,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의 땅에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선교사역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물론 외국인들이 여행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얼마동안 머무는 것은 허락한다. 선교운동가들은 이러한 선교적인 정황을 들어 '정문이 막히면 창문으로 들어가라. 창문이 막히면 다시 정문으로 들어가라' 고 조언한다. 접근제한지역(혹은 창의적인 접근지역) 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비거주 선교사나 단기선교사로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3) Douglas Erwin Millham. <Short term mission: A model for mobilizing the church> (Pasadena, C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8), 22.

14) Duane Anderson. <The role of short term mission trips in the discipleship of a congregation in world missions> M. A. Project, (Columbia, SC: Columbia Bible Seminary, 1992), 19.

12) 이복수 (1996), 70.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그러므로 단기선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단기선교는 장기 주재 선교가 용이치 않은 지역에서 장기 선교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적당한 단기 선교 경험을 통하여 교회의 구성원들을 갱신시키므로 세계 속에서 갱신의 불을 붙일 수 있다.¹⁵⁾ 단기 선교 경험은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1) 단기선교 지원자들로 하여금 장기 선교사가 되도록 불을 붙여 준다.
- (2) 단기선교는 지원자에게 선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헌신, 그리고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한다.
- (3) 단기선교의 영향은 헌신된 교회 지도자들을 일으켜 국내전도와 해외선교에 힘쓰게 한다.
- (4) 단기선교 팀은 진행되는 선교지역에도 신선하고 역동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5) 장기 주재 선교사들을 개발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이다.
- (6) 단기선교를 통하여 선교 지망자들이나 선교사 후보들이 다른 문화권을 접하고 자신들의 사명을 이해하게 된다.

단기선교 여행은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 실제적이고도 가장 빠른 길이다.¹⁶⁾ 그러므로 현대선교에 있어서 단기선교는 일반적

15) Duane Anderson. (1992), 9.

16) David C. Forward. *The essential guide to the short term mission trip.* (Chicago: Moody Press, 1998), 31.

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비전략적이고, 비효율적인 선교가 아닌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단기선교는 단순히 장기선교와의 비교차원에서 고려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Great Commission)이라는 대 명제 아래에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역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역의 내용인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대학에서 대학생들이 단기선교를 활발하게 전개한다면 선교하는 개인이 선교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변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쳐 단기선교운동으로 상승효과를 일으키고,¹⁷⁾ 학교전체를 선교지향적인 공동체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끌어가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전문인선교

오늘날 복음을 거부하는 국가나 지역이 늘어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선교전략 중 하나가 전문인선교전략이다. 기독교대학에서의 대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전문인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전문인선교협의회(USAT)에서는 전문인선교를 다음과 같이

17) 1870년도에 프린스턴서약을 통해 100명으로 시작되어 전 미국과 서구로 확산, 전개된 학생선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정의하고 있다. “전문인선교사는 자신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소유하고 타 문화권에서 접근하여 거주하면서 현지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데에 최우선 권을 두며, 가능한 곳에서는 교회를 개척하고 견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¹⁸⁾

전문인선교사는 사역의 전문성과 함께 기술적 전문성을 지닌다. 전문인선교사는 세속적인 직업 혹은 신분을 가지고 선교지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기술적 전문성을 지니는 목적은 아래와 같이 지적할 수 있다.

- 1) 자비량함으로써 사역비문제의 해결 : 여기서 자비량하면서 사역비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은 가능한 곳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¹⁹⁾ 그러나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것과 자비량을 반드시 동일시 할 수 없다.²⁰⁾ 대개 평신도 선교사라고 하면 당연히 자비량하는 선교사로 인식되어왔으나 오늘날에는 자비량 하건 하지 못하건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는 모든 선교사를 전문인선교사라고 지칭한다.²¹⁾

18) 민요섭, <전문인선교의 개념과 전략> 출처: <http://jesuspraise.net/전문인선교.htm>에서 재인용.

19) 이러한 목적의 선교사로부터 유래한 용어가 ‘자비량 선교사’ (self-supporting missionary)이다.

20) 실제로 한국의 전문인선교사 중 자비량 할 수 없는 ‘학생신분의 전문인선교사’가 전체 전문인선교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이는 UBF와 CCC가 전문인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학생으로서 전문인선교사의 사역을 할 경우 많은 이점이 존재한다.

21) 최바울, <전문인선교의 오늘과 내일>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 편,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서울: 도서출판 창조, 2000), 85.

- 2) 접근제한지역에서의 비자획득의 용이성(passport skill) : 전문인선교사가 파송되는 지역은 대개 접근제한지역 혹은 창의적 접근지역(CAN: Creative Access Nations)이다. 그러나 전문인선교사는 반드시 그러한 지역에 파송되는 선교사만을 일컫는 선교사는 아니다. 선교사입국을 환영하는 지역에 파송된다고 하더라도 직업적 전문성을 지니고 파송되는 모든 선교사를 전문인선교사라고 지칭한다.

- 3) 현지인과의 접촉의 용이성 : 접근제한지역에서는 대개 직업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는 그렇지 못한 선교사들에 비해 현지인과의 접근이 용이하다.²²⁾ 이것은 현지인들에게 외국인인 ‘선교사 체류의 타당성’을 제공해 주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

- 4) 선교현지에서 사회·경제·기술적 기여 : 선교사역은 전인적인 사역이다. 영혼뿐만 아니라 구제와 의료, 나아가서 그 사회의 경제기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은총으로서 기술·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선진국이 후진국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의미도 된다. 선교사역을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이라고 할 때 이러한 일반은총의 보급을 통해 사회전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은 전문인선교전략에 있어서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점이라고 본다.

- 5) 사역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기제(mechanism)로서의 직업 :

22) 그러나 직업적 전문성에 심하게 매일 경우 오히려 사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역의 좌절에서 오는 기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서 사역의 실패를 경험할 경우 선교사는 심각한 좌절을 맞게 되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영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클 수도 있다. 따라서 직업을 가지고 선교한다는 것은 사역의 좌절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diversion)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인 사역이 가져다주는 파생적인 효과라고 보아야지 그 자체를 목표로 간주한다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접근제한지역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지니고 사역한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적인 고도의 전문성 혹은 기술을 소유한 것이 전문인선교사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²³⁾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직업적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역의 전문성”이다. 이것은 전문인 선교사는 전임사역자(full time minister)이지 임의사역자(part time minister)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전문인 선교사가 현장에서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의 선교전략적 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면 직업은 접근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을 본업으로, 선교는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은총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직업적 전문성으로 선교지 사회에 기여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문인 선교사라고 할 때 반드시 특수 전문인에 국한시키는

23) 최바울. (2000), 87.

것은 적합하지 않다.²⁴⁾ 전문인선교에서 ‘전문인’이란 세속직업 혹은 신분을 지닌 선교사라는 뜻이지, 의사, 치과 의사, 기술자 등과 같은 특수직업종사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교 현지에서 그러한 특수직업을 필요로 한다면 특수기술자는 보다 용이하게 현지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의 기여도도 클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대학에서는 일반 학문의 제 전공영역을 수학한 학생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전문인인력을 양성하는데에는 대단히 좋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기독교대학 내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전문인선교사역에 필요한 훈련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여건 가운데 있으므로 기독교 대학의 학생들은 장단기 전문인사역을 감당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기독교대학과 전문인선교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학문의 각 영역을 탐구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학문의 각 영역을 탐구하는 대학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에서는 일반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의 각 영역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학문이 기독교 세계관, 즉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학문을 보는” 과학적 탐구가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학문적 탐구가 그리스도인에 의해 이루어진

24) Ibid.

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²⁵⁾

먼저 일반학문의 제 영역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전문 인선교사역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전 세계의 선교 현지마다 각각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인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독교 대학에서 각자의 전공을 이수한 자들이 다양한 지역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인이 되어 각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대학이 선교인력양성에 가장 적합한 장(場)이 된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인선교사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매우 다양하다. 의료직, 교직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중요시 되어 온 직업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엔지니어, 스포츠, 특히 비즈니스와 취업이민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전문적 직업을 가지고 선교현장에 나아가고 있다. 특히 전문인의 전 영역에 정보기술(IT)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컴퓨터 일반기술을 습득하는 일은 이제 전문인선교사로 나가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영역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표 1> 한국 전문인선교사의 직업별 분류(1998년)

의료직	간호사	104	엔지니어	엔지니어	7
	의사	18		건축사	2
	임상병리사	3		건축업	2
	치과 의사	2		컴퓨터시스템전문가	1
	치과기공사	2		프로그래머	4
	한의사	3		토목기사	1

	물리치료사	1		자동차 수리	3
	약사	4		전자기사	1
	약물치료사	1		전자공학기술자	1
교육직	유학생	633		시스템분석	2
	어학연수	6		전자수리센터	2
	교수	13	스포츠	합기도관장	1
	교사	24		태권도	181
	대학강사	2	사업	무역업	9
	대학사무원	3		사업가	11
	연구원	3		자영업	3
금융직	금융전문가	1		농장	11
	은행원	7		사진현상소	2
정부파견	외교관	44		인쇄소	6
	청소년봉사단	1		재단사	1
	KOIKA	14		재봉사	13
	평화봉사단	2		디자이너	2
일반직장	삼성직원	1		운전사	1
(파견인 포함)	KAL 직원	1		미용사	1
	직장	4		번역사	1
	판매사원	1		상업	2
	회사원	8	기타	사회사업	1
	사무원	7		취업이민	233
	BABY SITTER	1		배우자	144
	법률고문	1		기타	80
	공무원	4	총합		1639
	우체국근무	1			

출처: 이사무엘, 「평신도를 부른다」(서울: 성광문화사, 1999), 173

25) 김성수, <도르트대학교 포체스트롬대학교의 신학과 세계관> 김성수 외 편저, 「기독교대학과 학문 자료집(1)」(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1995), 266.

일반적으로 선교사 훈련에는 다음의 훈련이 포함 된다:

- (1) 성경공부와 기독교교리 등 기독교 관련된 훈련,
- (2)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인성 및 영성훈련,
- (3) 선교현지문화이해와 문화적응에 관련된 교육과 훈련,
- (4) 현지 언어에 대한 훈련 등이 포함되며,
- (5) 전문인선교사에게는 이에 더하여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실습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학문을 탐구하므로 기본적으로 성경과 성경에 관한 강좌, 그리고 기독교교리에 관한 과목을 수강, 공부하게 된다. 사역을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기독교대학에서의 기독교관련 과목의 이수능력은 성경에 관한 훈련을 대학 내에서 이미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채플, 신앙사경회, 수련회, MT, 기독교신앙동아리도입 등 학내 생활 중 신앙훈련을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4년의 기간 동안 선교사로서의 인성과 영성을 함양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훈련을 수행하는 과정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학기간 중이나 휴학기간 중에 단기선교를 통해 타 문화권을 접해 보기도 하여 타 문화권 적응과 선교에 대한 직접적인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다.²⁶⁾

더구나 사고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대학기간 중에 언어를 익히는 것은 일평생 해당 언어에 애착을 가지고 정진하게 하거나 그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여 장기선교뿐만 아니라 1-2년 기간의 단기선교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일반학문을 연마하는 것을 포함해 거의 모든 활동이 타 문화권 선교인력을 양성하는 데직, 간접적으로 탁월한 동원과 훈련의 장(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기독교대학의 타 문화권 선교사 양성방안

1. 기존의 연구

한국의 많은 기독교대학에서는 그 동안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일반 전공의 전문인들을 배출해 왔고 그를 통해 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양승훈 교수(1993)는 세속대학과 구별되는 기독교대학의 특성을 지적하면서 기독교대학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기독교적 학문연구, 지원론 연구, 공동체를 통한 문화변혁, 인재양성(바른 신자, 교사, 선교사)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²⁷⁾ 이것은 기독교대학이 기독교 학문

26)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외의 경우 모든 학생들은 재학기간(2-4년) 중 10일 이상 단기선교를 통한 선교실습을 하게하고, 자발적으로 매 학년마다 휴학한 후 한 학기 이상 단기선교를 다녀오는 학생의 수는 5-10명(정원 40-50명, 주간기준)에 이른다.

27) 양승훈, 「새로운 대학」(서울: CUP, 1993), 53-65.

연구기관 일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영역에 기독교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공동체적으로 문화를 변혁시키는 영역까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선교기관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선교개념의 포괄적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명령을 제시한 것으로써 기독교교육과 기독교 선교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기독교대학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서 선교사인력 양성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대학의 다양한 전공을 통한 전문인 선교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복수 교수(1996)는 선교공동체로서의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규정 한 후 포괄적인 의미의 선교개념으로써 기독교대학의 선교적 과제와 그 효과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무어(M. E. Moore)가 기독교교육의 교육적 과제가 하나님나라를 지향하는 실천을 통한 변형이라고 제시한 데에 착안하여²⁸⁾ 기독교대학이 교육적 사명을 가지나 그것은 목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하나님나라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연구의 포괄적 전제로써 기독교대학 자체가 선교사훈련 및 파송 기관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신앙공동체로서 기독교대학은 그 교육활동을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어 행하면 그것이 곧 선교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²⁹⁾

나아가 그는 기독교대학의 선교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28) Mary Elizabeth Moore. (1991), 45. 참조.

29) 이복수. (1996), 73.

방안으로서 성경적 조명 아래에 있는 교수, 우수한 기독교학생의 확보, 교목실 사역의 선교적 관심, 선교학과와 선교대학원의 설립, 피선교지의 학생유치, 대학 내 선교를 위한 모임의 육성, 선교자료 및 정보제공 등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선교학과와 선교대학원설립은 실행되었고, 교수부문은 기독교세계관의 구현과 전문인선교사의 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지속적으로 정보제공과 주의환기가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피선교지 학생유치 부분은 그 당시로서 매우 미래지향적 제안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포괄적 선교개념에 기초를 둔 논의이기는 하나 대부분 타 문화권 선교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기독교대학이 타 문화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제시인 것으로 평가된다.

김성수 교수(1996)는 기독교대학의 학문적인 측면의 방향성을 정리해 주고 있다. 그는 세상을 향한 기독교대학의 태도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겸손한 자세로써 세상의 변혁의 자세를 견지해야함을 강조하고 있고, 나아가 기독교대학이 가르침, 연구뿐만 아니라 봉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독교대학이 선교공동체임을 지적하고 있다.³⁰⁾ 특히 그는 기독교대학의 학문 영역이 농업, 기업, 예술, 교육, 노동, 정치, 매스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기독교대학을 위치시켰다(positioning)는 점에서 포괄적 의미에서 전문인선교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³¹⁾

30) 김성수. (1996), 39-41.

31) *Ibid.*, 42.

특히 이 점에 있어서 강용원 교수(1996) 역시 유사한 강조를 하고 있는 바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전인적으로 구원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전인적인 구원에 대한 전인적인 응답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으로는 존재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강조 하면서 아울러 포괄적인 삶은 통한 봉사의 응답으로 반응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³²⁾ 임영효 교수(1996)는 기독교대학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열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선교사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대학에서의 영성훈련의 구성요소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³³⁾ 이와 관련하여 이병수 교수(2002)는 참된 신앙과 순결한 삶의 성경적 기초를 지적해 주고 있고,³⁴⁾ 김상윤 교수(2002)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영성과 올바르게 성숙하여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특히 선교하는 인재를 양성할 것을 강조하며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³⁵⁾ 특히 남은우 교수(2002)는 기독교대학의 사회봉사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과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³⁶⁾

32) 강용원. <기독교대학의 신학적 기초> 오병세박사 은퇴기념 논문집편찬 위원회. 「기독교 대학과 학문에 대한 성경적 조망」(부산: 고신대학교, 1996), 60-61.

33) 임영효. <기독교대학과 영적 성장> 오병세박사 은퇴기념 논문집편찬 위원회. 「기독교 대학과 학문에 대한 성경적 조망」(부산: 고신대학교, 1996), 79-106.

34) 이병수. <신앙에 입각한 생활의 순결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전광식 외. 「기독교교육기관의 사명과 역할」(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2), 21-37.

35) 김상윤. <인재양성방안> 전광식 외. 「기독교교육기관의 사명과 역할」(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2), 39-50.

36) 남은우. <하나님나라와 인류사회의 봉사구현방안 연구> 전광식 외. 「기독교교육기관의 사명과 역할」(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2), 53-68.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독교대학의 선교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선교적 공동체인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확립문제와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봉사를 포함한 선교의 개념에 입각한 단편적인 지적은 있었으나 해외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독교대학의 인재양성방안과 전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2. 기독교대학의 타 문화권 선교사 양성방안

A. 선교에 있어서 두 가지 힘: 흡인력과 팽창력

선교에는 흡인력(attractive force)과 팽창력(expansive force)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힘(force) 혹은 구조(mechanism)가 존재한다.³⁷⁾ 흡인력(혹은 구심력)은 이방 민족이 성막이나 성전과 같은 하나님 임재하는 곳으로 몰려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게 하는 양식이다. 모압 여인 롯이나 나아만, 솔로몬시대의 각 국에서 이스라엘로 몰려든 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자율적으로 온 경우도 있고, 타율적으로 온 경우도 있다.³⁸⁾ 주로 구약의 선교양식이지만, 신약에

37) Jonathan Lewis. <Two forces> Ralph Winter & Steven C. Hawthorne. eds.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99), 60. 문화인류학에서는 이들을 “끌어들이는 요소(Pulling factor)”와 “밀어내어 요소(Pushing factor)”라고 칭하기도 한다.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 공저. 「문화인류학개론」(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443-448.

38) Ralph Winter. <The kingdom strikes back: Ten epochs of redemptive history> Ralph Winter & Steven C. Hawthorne. eds.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195-213.

도 나타나는데 오순절 날 “천하 각국으로부터”(행 2:5) 경건한 삶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같은 예가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오는 구조’(Come structure)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³⁹⁾

팽창력(혹은 원심력)은 이스라엘 경계 밖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힘이다.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사용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요셉, 다니엘, 에스더, 선지자 요나가 여기에 해당되고, 예레미야 역시 ‘열방의 선지자’로 임명되었다(렘 1:5). 이러한 예는 선지자나 높은 신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어린 이스라엘의 여종도 팽창력의 전령으로 사용되었다.⁴⁰⁾ 신약에서 나타나는 거의 모든 복음전도자들은 이 구조에 해당된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가는 구조’(Go structure)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⁴¹⁾

전기한 바와 같이 이 두 역동적 힘은 오늘날에도 작용한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를 보고서 교회에 몰려든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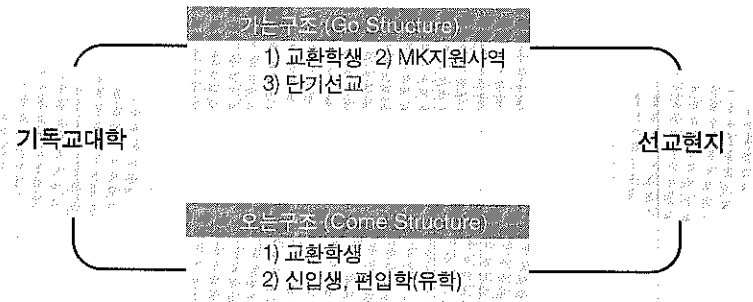
39) Bengt Sundkler. *The world of mission*. Grand Rapids, MI: Eerdmans, 1962, 15-16; Charles van Engen. *God's missionary people*.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91을 참조하라.

40) Jonathan Lewis. 1999, 67.

41) J. C. Hoekendijk는 이를 ‘흩어지는 교회’(the church inside out)로 표현하고 있다. J. C. Hoekendijk. *The church inside out*. 이계준 역. 「흩어지는 교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참조.

경건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의 행실을 보고 교회로 찾아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지상위임령에 순종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동기 등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 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기독교대학에 재학 중 학업과 훈련을 받고 타 문화권으로 나아가는 ‘가는 구조’와 해외에서 한국기독교대학에 유학하고자 하는 ‘오는 구조’를 구분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한다.



B. '가는 구조' (Go Structure)를 통한 선교인력 양성방안

1) 타 문화권으로 가는 교환학생을 통한 선교인력 양성방안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의 대학은 학교의 경쟁력을 제고(提高)하기 위해 외국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교환학생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에 있어서 교환학생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줄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타 문화권 체험을 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A대학교의 경우 시작된 교환학생 제도를 통하여 현지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현지 문화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현지학생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다. 이것은 다른 기독교대학인 H대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환학생제도 보다는 어학연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환학생제도를 통한 단기선교는 다음의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 파견 전 선발과정에서 단기사역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있는 자를 선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단기선교에 대한 비전이 분명한 선발도구(selection measure)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2) 선발 후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 이전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지체들을 통해 현지의 사정과 문화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아울러 단기사역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바람직한 전략을 논의,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 (3) 특정지역이나 학교의 교환학생의 경험자들이 교내모임(circle)을 결성하여 후발 교환학생후보들에게 적절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하며, 학교에서는 이 모임을 적극

적으로 후원해야 한다. A, H대학에서는 이러한 모임이 결성되어 예비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A대학의 경우 '평요우'(朋友)라는 교환학생들의 자율적인 씨클이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살피 주고 있다.

(4) 선발된 학생들의 팀워크(team work)를 재구축하고 분명한 비전의 공유하며, 학생 상호간 선교적 마인드를 제고시켜주도록 해야 한다. 교환학생으로 본국을 떠나기 전에 팀 구축(team building)을 통한 그룹의 역동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장애가 되는 갈등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5) 팀 리더의 선발이 중요하며 단기선교에 대한 팀 리더의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학생들은 팀 리더로서 가장 적합한 자질을 지닌 자를 신중히 선발해야 하며 현지에서 교환학생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조정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단기선교를 위한 동기부여와 비전제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6) 헌신된 현지의 전문인사역자의 동의 속에서 그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양육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교환학생 자신이 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A대학의 경우 현지에서의 헌신된 전문인선교사의 양육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참여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7) 타 문화권에서의 경험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면 매우 좋은 유인(誘因)이 될 것이다. A대학의 경우 해외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경우에도 '선교실습'이라는 과목에서 2학점의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방학 중 선교사자녀(MK: Missionary Kids)의 학업을 지도했다면 이를 인정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8) 아울러 해외교환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유인을 주어 헌신된 학생들이 많이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아니지만 B국립대학의 경우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학비와 항공료 및 체제비의 일부까지 학교에서 보조해 주어 교환학생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2) MK의 학업지도를 돕도록 하는 방안

선교사에게 있어서 자녀교육문제는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위생요인' (hygiene factors or dissatisfiers)임과 동시에 선교사로 하여금 안심하고 사역에 전념하게 하는 '동기부여요인' (motivators or satisfiers)이기도 한 특이한 요인이다.⁴²⁾ 그만큼 자녀교육문제가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미이다. 기독교대학에서 MK의 교육을 돕도록 하는 방안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1) MK의 학업지도를 돕도록 하는 유인으로서 학점을 부여한다.

이를테면 40일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지 오리엔테이션과 MK 학업지도를 담당했다면 10일 이상 선교지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것으로 '선교실습' 과목 2학점, 30일 이상 MK들의 학업지도를 담당한 것으로 'MK지도사역' 3학점 등 토털 5학점을 이

수하게 되도록 한다.

(2) 총회선교부와 협력하여 MK지도사역이 필요한 선교지의 수요를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수시로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실제로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자녀교육문제이다. 특히 선교사가정이 많지 않은 오지에는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매우 심각한 과제이며 그 중에서도 현지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초·중등생 선교사자녀의 한국어교육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고충사항을 기독교대학에 재학 중인 단기학생 사역자들이 감당해 준다면 선교사들의 현지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선교사 자녀의 학업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한국어학당'을 설립하여 한국어 교사자격을 취득하게 하면 한국어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어 교사자격을 얻게 된다면 (a)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사역하는 장기사역자의 배출이 가능하고, (b)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여 취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며, (c) 외국에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들의 한글교육이 가능하고, (d) 아울러 그 학생들에게 교양과정으로 한국어강독, 한국어작문, 한국어회화 등의 과목을 이수하게 하여 특화된 교양과정을 만들 수도 있고, 이에 더하여 (e) MK사역에 한국어 교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단기사역의 순회(rotation)를 통해 MK 교육사역이 연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연속적 MK교육사역은 단기 사역자들로 하여금 MK사역의 중요성을 알려

42) 동기부여이론 중 Herzberg가 주장한 '이요인이론' (二要因理論)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인을 일컫는 용어이다. 신유근, 「조직행위론」(서울:다산출판사, 1992), 230-232. 참조.

전체적으로 한국교회의 MK사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생 단기MK사역은 한국교회에 MK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MK사역을 위한 교회의 동원을 가능하게 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MK사역을 후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재학 중 휴학한 자들이 선교현지에 나가는 경우

경제적인 사정이나 경제외적인 사정으로 휴학을 한 경우 이를 선교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없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재학 중 선교현지에서 선교사들을 돕고 단기선교를 체험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기선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학교 내 단기선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휴학 후 단기(6개월-2년) 선교를 계획하는 자들이나 그러한 단기선교에 매력을 느끼는 자들에게는 구체적인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기선교를 촉진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휴학한 자로 하여금 단기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휴학기간 중 학점인정제도와 경제적 지원 등이 주된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휴학기간에도 단기선교를 통해 상당히 많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전술한 바와 같이 방학을 포함하여 1학기(6개월)이상 단기사역을 한 자에게는 먼저 10일 이상 현지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선교실습' 과목 2학점, 방학 중 혹은 그 기간 중 30일 이상 선교사자녀의 교육을 지도했을 경우 'MK 지도사역' 과목 3학점, 4개월 이상 현지 선교사의 사역을 돕거나 그 사역에 동참했을 때에는 '단기선교' 과목 4학점 등을 부여한다면 휴학기간 동안 토탈 9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⁴³⁾ 한 학기 이상 휴학을 한 경우는 현지적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관계로 선교사자녀교육을 심도 있게 감당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학점부여는 4학년 마지막학기에 진학준비나 취업준비, 취업 등을 위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유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점관계의 사안은 기독교대학의 선교센터나 유관학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인 이유로 휴학하고 단기선교를 지원한 학생의 경우에 장학금 형식으로 교통비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에서 제시한 학점제도에 상승효과를 가져와 단기선교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장학금은 교단의 지 교회(local church)를 통해 지원받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기독교대학의 대학생단기선교 학점제도와 장학금제도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43) 단기선교사역을 1년(10개월)이상 했을 경우는 4개월 단위로 '단기선교 I' 과목을 '단기선교 II' '단기선교 III' 로 나누어 각각 4학점을 부여해 준다면 전체 13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1) 학교 전체를 선교지향적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러한 선교지향적 공동체의 형성은 학교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에도 큰 밑바탕이 될 것이다. 학내 영적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이러한 학내의 분위기는 대교회관계를 원활하게 할 것이고 각 교회에 학교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는 신입 학생들의 동원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휴학생 단기선교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교회는 학교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 (3) 학교의 특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선교하는 기독교 대학의 이미지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을 것이다.
- (4) 또한 단기선교를 다녀온 자들의 그룹모임을 통해 단기선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해 지고 효율적인 사역방안이 연구될 것이며 이는 전체적인 단기선교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5) 일반학과의 전문성을 부각시켜 학문적 기술적 전문성을 함양시킨다면 선교사역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대학의 선교적 특성을 구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6) 전체 학생을 선교자원으로 활용하여 전 생애를 선교 지향적 삶으로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대학의 단기선교 혹은 단기전문인선교는 학내에서

는 학내의 영적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대외적으로 학교를 특성화시키며, 학교의 위상을 제고시켜 우수한 기독교대학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쁘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써 학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C. '오는 구조' (Come Structure)를 통한 선교인력 양성방안

근래에 저 출산율 등의 이유로 대학의 입학정원 숫자가 고등학교 졸업정원을 초과하게 되자 전국적으로 미달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그 중 하나가 해외학생을 유치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선교 공동체로서 기독교 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해서도 해외학생의 유치는 절실한 당위적 요청이다.⁴⁴⁾ 이미 부산시내 S대학에서는 100명이 넘는 중국학생들을 모집하여 학교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1) 교환학생으로 오는 타 문화권 학생들의 관리방안

교환학생으로 기독교대학에 오는 경우에는 복음전도와 현지전도 인력양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A대학의 경

44) 이복수, <교회의 선교적 본질의 의미> 이근삼 박사 사역 50주년 기념논문집 발행위원회 엮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서울: 총회출판국, 2003), 515-519.

우 교환학생으로 한국 기독교대학에 온 것 자체가 그들로서는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고, 현지학교에 A대학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국내 H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교환학생으로 오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교내 국제교류처와 같은 부서에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당해 학교에 교환학생의 경험이 있는 동료들의 모임(circle)이 있을 경우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A 기독교대학의 경우 해외 교환학생 유경험자들의 모임이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본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온 해외 학생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인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팀을 만들어 소그룹으로 해외교환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으며 아울러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복음을 제시하여 교환학생들이 학기를 마칠 때 즈음에는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돌아간다.
- (2) 교환학생들을 위한 학과목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이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여 학업의 편의성과 아울러 본국의 문화를 알리도록 해야 한다. A 대학의 경우 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의 이해' 라는 강좌가 팀티칭 형식으로 개설되어 있고, 교환학생들의 나라가 포함된 별도의 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3) 아울러 이들을 위한 한국어 관련 강좌가 다양하게 개설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한국말을 잘 못하거나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이 교환학생으로 생활하는 기간 동안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도록 하는 것 만 해도 이들의 해외생활에 있어서는 대단한 수확이 될 것이다. 한국어 강좌에는 '한국어강독,' '한국어작문,' '한국어회화' 등의 과목이 난이도별로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⁵⁾

- (4) 해외교환학생들의 학내생활 편의를 위하여 멘토제도(mentor system)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를 도와주는 언어도우미가 필요하며 아울러 학업과 적응을 위한 도와주는 한국친구가 필요한데 이 역시 학생들의 자발적인 씨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국문화(異國文化)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의해 주고 그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초창학교의 기본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학교와 국가의 이미지개선과 나아가서 기독교의 이미지 제고에도 필수적인 것이다.
- (5) 학내 기숙사와 강의실 등 제반 편의시설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학생들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과의 관계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환학생으로 오는 학생들은 외국의 학교와 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국 기독교대학의 입장에서는 황금어장이라

45) 이를테면, '초급,' '중급,' '고급' 등의 구분이다.

고 할 수 있다. 선교사가 현지에 진입하여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의도적으로 익히는 것(acculturation)과는 반대의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 학생을 받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본국의 문화와 언어습득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자세는 철저한 섬김과 겸손의 자세, 그리고 지혜로운 행실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접근할 때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 줄 것이다.

2) 타 문화권에서 입학이나 편입학하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화의 진척에 따라 해외 학생들이 국내로 유학 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선교현지, 접근제한지역의 학생들을 기독교대학에서 유치하는 일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선교적 효과를 포함하는 바, 그 하나는 기독교대학에서 신학과 선교학을 교육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직접적으로 복음전도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각자의 일반 전공과목을 뛰어난 전문인이나 교직으로 사역할 수 있다.⁴⁶⁾ 나아가 이들이 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수학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하게 할 경우에는 학교와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한 관리방안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정책적 차원에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기독교대학의 선교적 사명과 대학의 생존 자체를 위해 학

교 당국에서는 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도 전략적인 유치의지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기독교대학의 경우 교회의 후원을 받아 장학금을 마련한다면 이들을 유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상황이 열악한 제삼세계에서 오는 학생들의 경우 이것은 유지를 위한 매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A 대학에서는 제삼세계에서 교회지도자 양성의 목적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지 선교사와 연계 하에 그들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학교의 모든 경비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제공하고 그 절반은 지 교회에서 후원받아 입학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따르면 학생은 금전적으로 전혀 부담 없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 (3) 일 년의 교양과정은 이들만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들만을 위해 일년간의 교양과정을 별도로 학과목으로 개설하는 것도 이들의 적응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학 오는 학생들의 경우 국내학생들과는 달리 한국어로 강의를 듣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짐이 된다. 이를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은 다양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를 포함하여 이들을 위한 교양과정을 개설하여 남은 3년간의 학업을 위한 준비단계와 준비기간이 되게 하고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숙지하여 전공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매 학기 1-2 과목 정도는 본국학생들과 같이 수강하게 하는 절충안도 이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가능하리라 본다.
- (4) 전술한 바와 같이 학내생활 편의를 위해 멘토제도를 도입하

46) 이복수, (1996), 76-77.

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 문화권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의해 주고 그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해 주며, 특히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한국학생을 맺어 주어 언어를 보다 용이하고도 집중적으로 배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해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의 총괄적인 지도는 교내 국제교류처와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되 해외유학의 경험이 있는 동료들의 모임(circle)을 만들어 이들 상호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이들과 한국학생들을 연결해 주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6) 이들에 대한 신앙적 지도를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 보다는 대인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이들이 신학을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학과목을 통해 신앙 안에서 관계성을 맺고 양육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멘토제도(dual mentor system)를 두어 교수 한 분과 학생 한명이 교차적으로 멘토를 맡아 이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7) 전 세계 한국선교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지의 예비지도자로서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을 발굴해 내고 그들에게 기본적인 한국어를 가르쳐 한국의 교회와 협조하여 기독교대학에서 신학을 비롯한 제 학문을 공부하게 한다면 선교현지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에 한국의 기독교대학이 큰 공헌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복음전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수용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접근제한지역에 선교할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미 제삼세계로부터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는

대학이 생겨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이들을 모집하려는 대학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기독교대학에서는 선교적 사명에서 또한 학교의 생존자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결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으나, 선교사의 파송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목회자(성직자) 선교사의 입국을 제한하는 접근제한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종족과 문화의 장벽이 높아져 기독교 선교가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단기 선교사역에 동원하고(Come structure), 교환학생을 유치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으로 양육하여, 제삼세계의 신입생을 신학을 포함한 모든 일반 학문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양육하여 내 모낸다는 것은 기독교대학의 선교적 임무를 다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이바지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세계선교를 위한 기독교대학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교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선교의 새로운 전략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윤. (2002). <인재양성방안> 전광식 외. 「기독교교육기관의 사명과 역할」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 김성수. (1995). <도르트대학과 포체스트룸대학의 신학과 세계관> 김성수 외 편저. 「기독교대학과 학문 자료집(1)」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 김성수. (1996). <기독교대학기독교대학이란 무엇인가?> 오병세박사 은퇴기념 논문집편찬 위원회. 「기독교대학과 학문에 대한 성경적 조망」 부산: 고신대학교.
- 남은우. (2002). <하나님나라와 인류사회의 봉사구현방안 연구> 전광식 외. 「기독교교육기관의 사명과 역할」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 민요섭. (1997). <전문인선교의 개념과 전략> 출처: <http://jesuspraise.net/전문인선교.htm>
- 신유근. (1992). 「조직행위론」 서울: 다산출판사.
- 이복수. (1996). <기독교대학의 선교적 과제> 오병세박사 은퇴기념 논문집편찬 위원회. 「기독교대학과 학문에 대한 성경적 조망」 부산: 고신대학교.
- 이복수. (2003). <교회의 선교적 본질의 의미> 이근삼 박사 사역 50주년 기념논문집 발행위원회 엮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서울: 총회출판국.
- 이사무엘. (1999). 「평신도를 부른다」 서울: 성광문화사.
- 전호진. (1991).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 최바울. (2000). 「전문인선교의 오늘과 내일」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 편.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서울: 도서출판 창조.
- 한상복, 이문웅, 김광영 공저. (1990).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Anderson, Duane. (1992). <The role of short term mission trips in the discipleship of a congregation in world missions>. M. A. Project. Columbia, SC: Columbia Bible Seminary.
- Engen, Charles van. (1991). *God's missionary people*.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 Forward, David C. (1998). *The essential guide to the short term mission trip*. (Chicago: Moody Press.
- Hoekendijk, J. C. (1979). *The church inside out*. 이계준 역. 「흠어지는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Lewis, Jonathan. (1999). <Two forces>. Ralph Winter & Steven C. Hawthorne. eds.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Millham, Douglas Erwin. (1988). <Short term mission: A model for mobilizing the church>. Pasadena, C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Moore, Mary Elizabeth. (1991). *Education for continuity & change*. 이정근, 박혜성 역.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모형」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 Piper, John. (1993). *Let the nations be glad!* Grand Rapids, MI: Baker.
- Sundkler, Bengt. (1962). *The world of mission*. Grand Rapids, MI: Eerdmans
- Winter, Ralph. (1999). <The kingdom strikes back: Ten epochs of redemptive history>.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